

저출산·초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저출산·초고령사회 새로운 패러다임과 강원도 대응전략 모색

일 시 : 2017년 8월 30일(수) 14:00~16:00

장 소 : 강원도의회 세미나실

주 최 강원도민일보·강원도의회 저출산고령화극복방안연구회

주 관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3:30~14:00 30'	▸ 등 록
	사회 : 박창현 (강원도민일보 문화부장)
14:00 ~ 14:10 10'	▸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 개회사 : 박윤미 (강원도의회 저출산·고령화 극복방안연구회장) ▸ 인사말 :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 축 사 : 김동일 (강원도의회 의장)
	좌장 : 윤지영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14:10~14:50 40'	▸ 주제발표 : 저출산·초고령사회 대응 새로운 시각·새로운 과제
	· 차흥봉 (세계노년학회 회장, 前 보건복지부 장관)
14:50~15:40 50'	▸ 토 론 · 송민경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 변영혜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장·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장) · 김영범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교수) · 어흥선 (경동대학교 실버복지학과 교수) · 최형자 (강원도 경로장애인과장)
	*발표순
	<종합토론>
15:40~16:00 20'	▸ 질의응답 및 토론

※ 사정에 따라 토론자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차 례

주제발표

저출산·초고령사회 대응 새로운 시각·새로운 과제 / 7

차 흥 봉 (세계노년학회 회장, 前 보건복지부 장관)

토 론

강원도 노인인력의 적극적 활용 방안 모색 필요 / 29

송 민 경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초고령 사회를 향한 새로운 시각과 과제 / 36

(노인의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변 영 혜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장)

치매친화공동체(dementia friendly community)의 필요성 / 40

김 영 범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교수)

고령자 복지수요증가에 따른 발전요인 : / 42

국내·외 실버산업을 중심으로 한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

어 흥 선 (경동대학교 실버복지학과 교수)

※ 추후 별첨

최 형 자 (강원도 경로장애인과장)

저출산·초고령사회 대응 새로운 시각·새로운 과제

차 흥 봉 (세계노년학회장, 前 보건복지부 장관)



저출산 · 초고령사외 대응 새로운 시각 · 새로운 과제

2017년 8월 30일
강원도 전문가토론회



사 응 분
IAGG
세계노년학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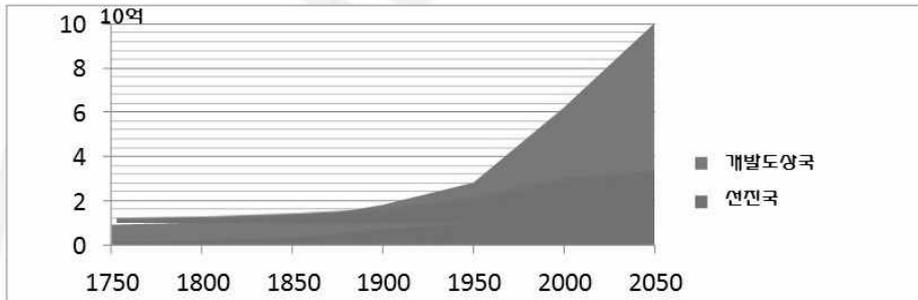
☞☞ 목차

- 지구촌 인구고령화
- 한국의 고령사외 연상
- 인구고령화의 C & C
- 초 고령사외의 도전적 과제
- 새로운 패러다임 · 새로운 시각
- 새로운 비전 · 새로운 과제



지구촌 인구고령화

세계인구증가



20세기의 특징

- 거대한 산업화
- 인구증가 : 1900년 20억 미만 -> 2000년 60억 이상
- 인간수명의 증가
- 전반적 삶의 수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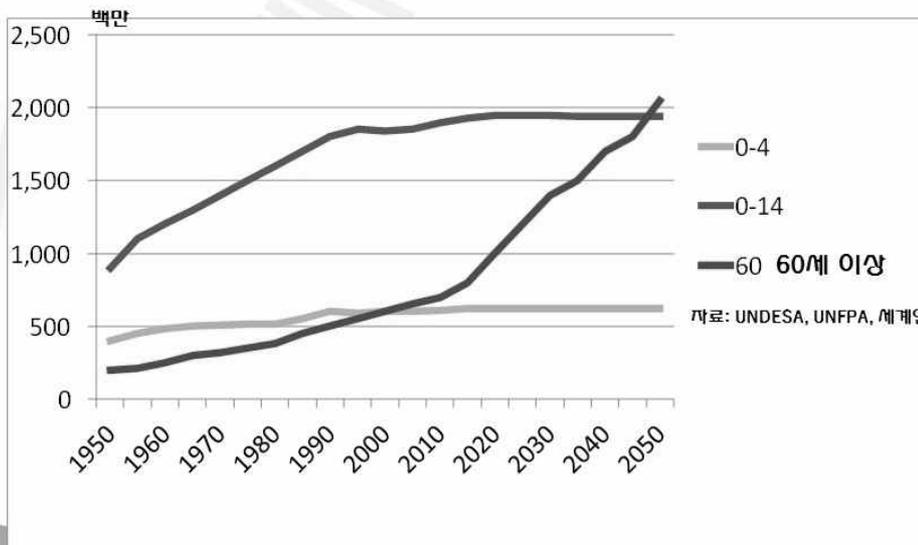
이러한 긍정적 양상과 함께 인구고령화와 같은 문제점 동반



지구촌 인구고령화

고령인구 증가추세

60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 (1950-2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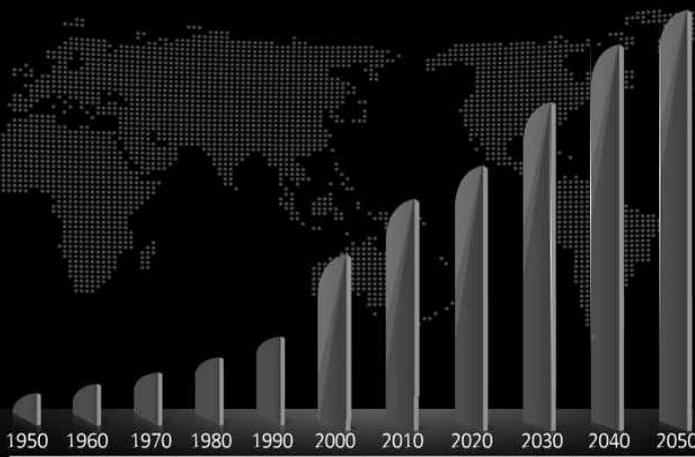


자료: UNDESA, UNFPA, 세계인구추계 (뉴욕, 2011)



60세 이상 고령 인구 증가 (1950-2050)

The 20th IAGG World Congres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Source: UNDESA,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New York, 2011).



지구촌 인구고령화

60세 이상 인구 비율 (2012)



《《 지구촌 인구고령화

60세 이상 인구 비율 (2050)



현재, 일본이 60세 이상 인구비율이 30%이상인 유일한 국가
2050년까지 64개 국가가 일본과 같은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지구촌 인구고령화

세계 고령인구 지표

(단위 : 천, %)

구분	2011/12	2050
60세 이상 인구수	809,742	2,031,337
80세 이상 인구수	114,479	402,467
100세 이상 인구수	316	3,224
60세 이상 인구 비율	11.5	21.8
80세 이상 인구 비율	1.6	4.3
남녀성비	83.7	86.4

자료 : UNDESA, UNFPA(2012)



지구촌 인구고령화

기대수명의 증가

- 1950-2000 46세에서 66세로 20년 증가
2000-2050 66세에서 76세로 10년 증가
- 현재 전세계 33개국 기대수명은 80세 이상

국가	기대수명 2010-2015		60세 기대여명 2010-2015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세계	67	72	18	22
선진국	75	81	21	25
저개발국	66	69	18	20
최아래개발국	58	60	1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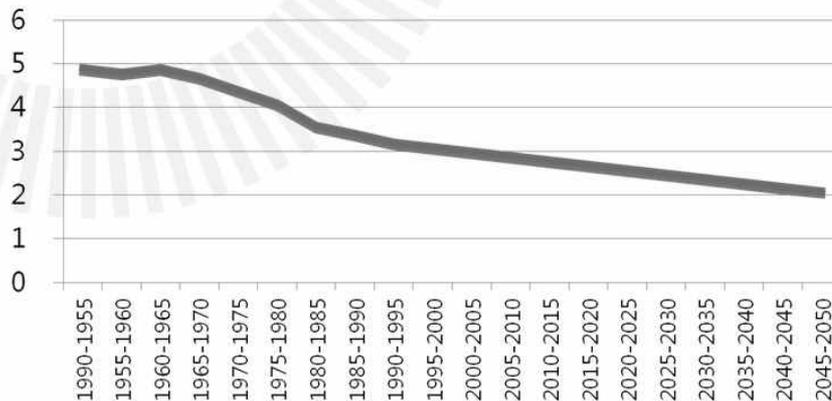
자료 : UNDESA, UNFPA(2012)



지구촌 인구고령화

출산율의 저하

- 현재 출산율 감소 여성 한 명당 출산율 5명(1950-1955)→2.7명(201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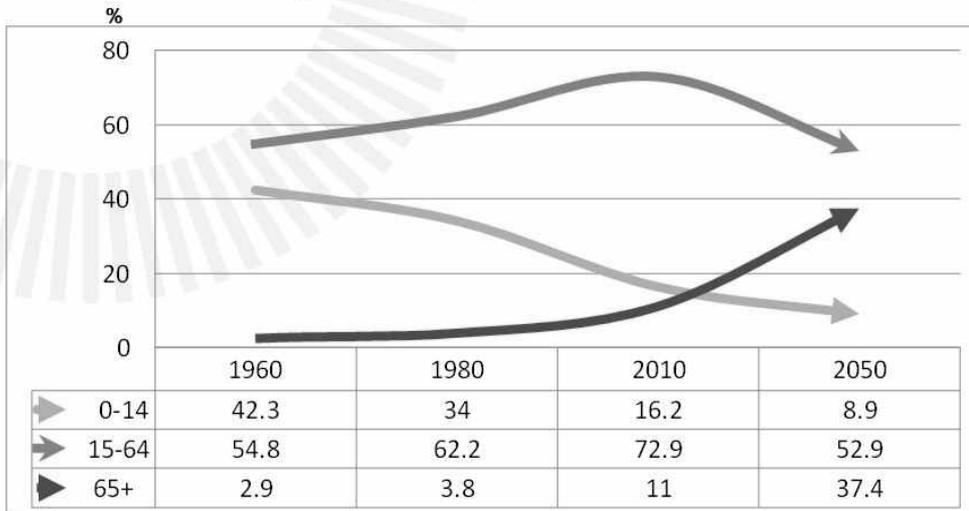


자료 : UNDESA, UNFPA(2012)



«« 한국의 고령사외 연상

한국의 인구변화



한국의 고령사외 연상

65+ 노인인구증가

- 2000년~2030년 사이 고령화사외-고령사외-초 고령사외를 넘어 세계 최고령국가로 진행

단위: 1,000명

	1960	1980	2000	2015	2030	2050	2060
총 인구	25,012	38,124	47,008	50,617	52,160	48,121	43,959
65+ 노인인구	726	1,456	3,395	6,624	12,691	17,991	17,622
%	2.9	3.8	7.2	13.1	24.3	37.4	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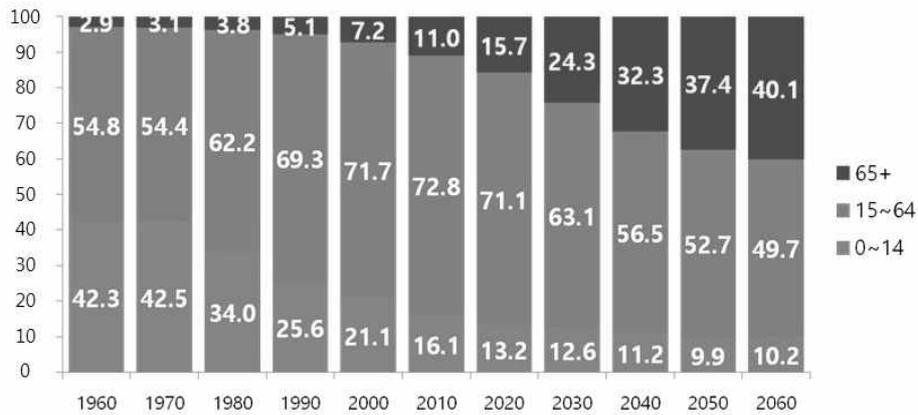
Source : Statistics Korea, Population Projections (2011).



한국의 고령사외 연상

노소인구의 역전연상

■ 유소년인구의 감소에 대비한 노인인구 증가연상



Source : Statistics Korea, Population Projections (2011)



한국의 고령사외 연상

평균수명 연장과 저 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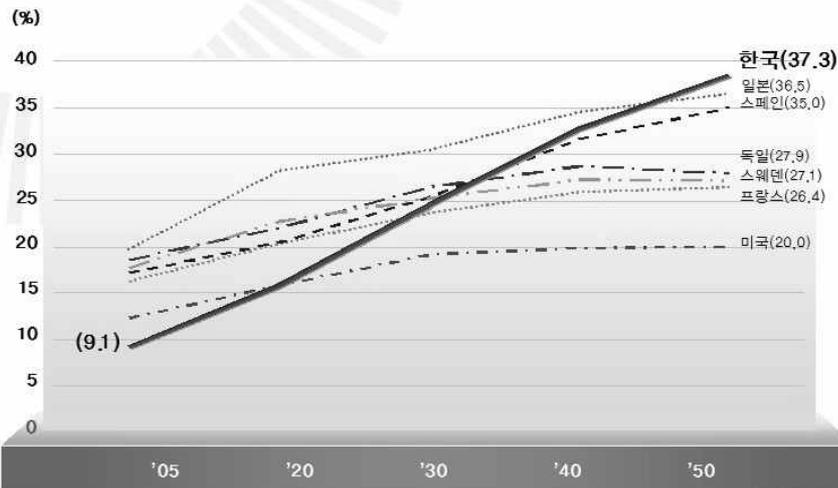
구분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평균수명(년)	남자	72.8	77.2	79.3	81.4	83.4	85.1
	여자	80.0	84.1	85.7	87.0	88.2	89.3
합계 출산율(명)		1.47	1.23	1.35	1.41	1.42	1.42



◀◀ 한국의 고령사외 연상

고령화 속도

■ OECD 국가의 노인인구비율 추이



◀◀ 인구고령화의 C & C

인구고령화의 축복

- 지구촌의 인구고령화가 주는 메시지는 두 개의 C임
 - Celebration(축복)과 Challenge(도전)

- 인간 100세 시대(Homo Hundred)는 인류의 축복
 - 전세계 100세 인의 수는 계속 증가할 전망
 - : 31만 6천명(2011) → 3.2백만(2050)

- Healthy and Active Ageing(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의 사회에 대한 기여 무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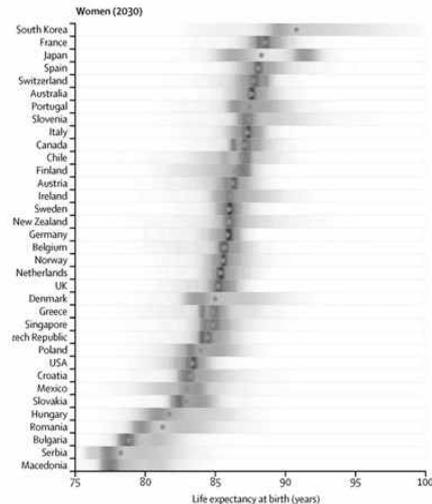
인구고령화의 C & C

인구고령화의 축복

■ 2030년 한국국민의 평균수명: 세계 35개 선진국 중 1위 예측

- 여성 : 90.8세 (세계 기록)
- 남성 : 84.9세
- 요인 : 아동 및 성인 질환 감소, 노인만성질환 사망 감소
- 배경 : 생활수준 향상 및 영양상태 개선, 교육수준 향상, 건강보험 등 의료혜택, 의료기술 발달

■ 평균수명 증가는 인류의 큰 성취 중 하나



<자료> 2017. 2. 21. WHO 와 영국 Imperial College 공동 연구 결과



인구고령화의 C & C

인구고령화의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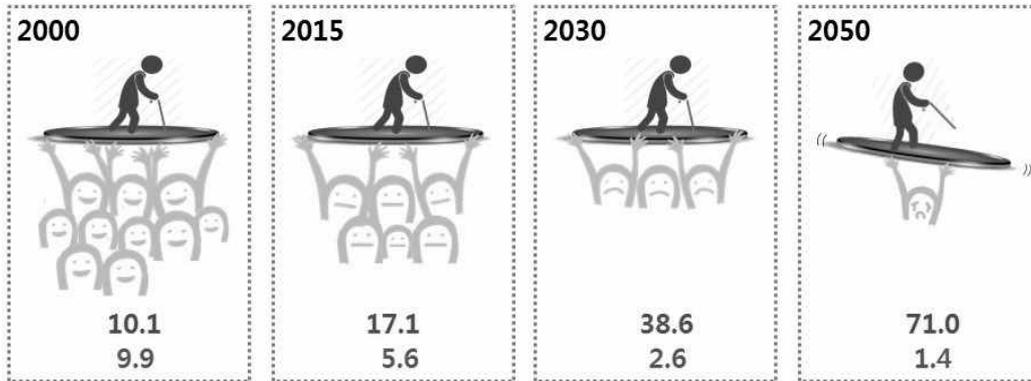
- 인구고령화가 주는 또 하나의 C는 도전적 과제(Challenge)
- 백세 시대의 축복은 새로운 도전과 함께 옴
- 인구고령화는 개인, 가족, 사회 그리고 지구촌에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도전으로 나타남
- 이 도전을 어떻게 해결하고 기회를 최대화 하느냐 하는 것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



인구고령화의 C & C

인구고령화의 도전

- 한국의 노인부양부담 추이
 - 65세 이상 노인인구 1인당 경제활동인구 감소연상



* Age dependency ratio

* Working age population per older person(65+)



« 조 고령사회의 도전적 과제

한국 인구고령화의 도전

- 경제발전, 사회변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의 도전

→ 지난 50년간 한국의 경험 :

경제성장, 산업화와 함께 인구고령화 연상
 사회변화, 가족변화와 함께 노인문제 확대
 노인욕구 증대,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수요 증대

- 고령화 시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노인복지가
 21세기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큰 전략적 과제



«« 초 고령사회의 도전적 과제

소득보장과 재정 문제

- 세계적으로 노인복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소득보장
 - 선진국: 연금제도의 지속성 문제 - 모든 나라에서 연금제도 조정
 - 개발도상국: 소득보장의 확대 문제
- 한국 연금제도의 도전
 - 국민연금 확대와 재정문제
 - 기초연금 확대와 재정문제
- 고령자 고용 확대와 경제적 자립의 과제
 - 연금제도의 지속성과 연관



«« 초 고령사회의 도전적 과제

의료보장과 재정 문제

- 지구촌 인구고령화와 함께 노인 의료서비스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중요한 도전적 과제
 - 선진국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장기요양서비스비용의 증가가 큰 문제
 - 개발도상국에서는 의료보장과 장기요양 서비스의 확대가 중요 과제
- 한국 의료보장의 도전
 -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보험료 인상 등 재정문제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 및 서비스 확대와 재정문제



초 고령사회의 도전적 과제

의료보장과 재정 문제

■ 한국 건강보험의 노인 진료비 증가 추이

(Unit : billion KRW)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건강보험 총 재정지출	2,941	6,144	12,912	24,861	43,628	57,954
65+ 재정지출	240	738	2,255	6,073	14,134	22,236
비율	8.2	12.0	17.5	24.4	32.4	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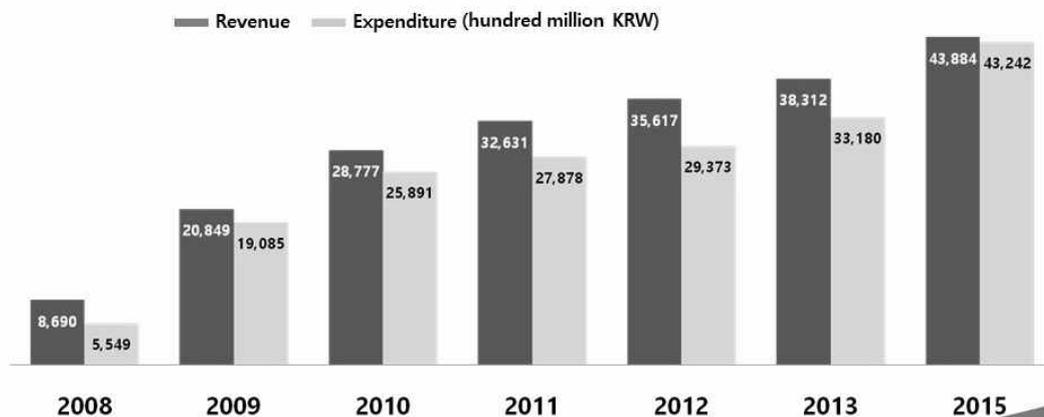
Source : NHIS, Statistical Yearbook(2015).



초 고령사회의 도전적 과제

의료보장과 재정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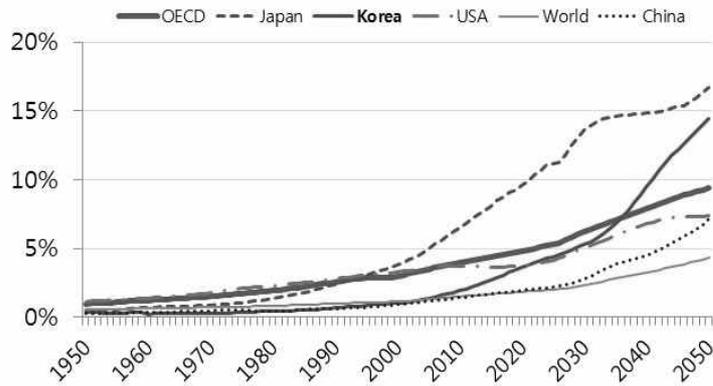
■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추이



초 고령사회의 도전적 과제

노인복지서비스의 도전

- 노인복지, 노인돌봄서비스의 수요 증대
- 80세 이상 후기고령노인인구의 증가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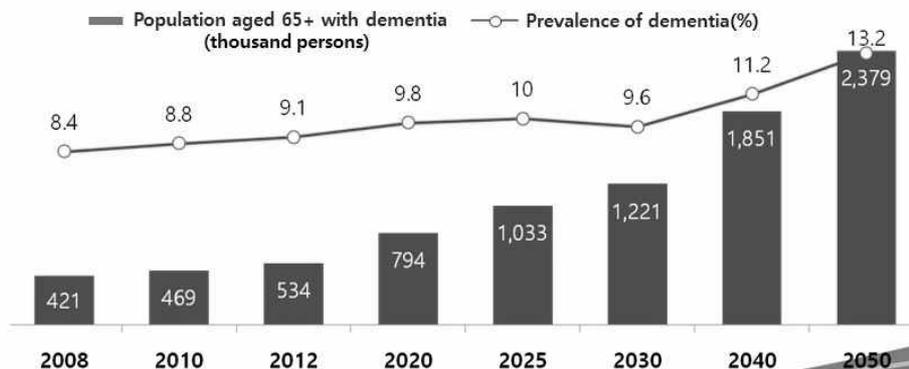
Source: OECD, Labour Force and Demographic Database (2010).



초 고령사회의 도전적 과제

치매노인 증가와 도전

- 장수시대 치매노인증가와 그 관리 대책 중요
 - 지구촌 치매노인 현재 약 4천만 명, 2050년 1억 2천만 명 추계
- 한국 치매노인 증가 추이



《《 새로운 패러다임 · 새로운 시각

새로운 패러다임

- 인구고령화는 도전이기는 하나 위기로 볼 필요는 없음

도전이긴 하나 위기가 아님 $C \neq C$

- 인구고령화를 긍정적 시각에서 보면 하나의 기회임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에 $C \rightarrow C$

- 긍정적 시각에서 보면 도전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음

도전 \rightarrow 축복 $C \rightarrow C$



《《 새로운 패러다임 · 새로운 시각

새로운 패러다임

- 인구고령화를 긍정적 시각에서 보는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상

- WHO와 IAGG의 새로운 제안

Healthy and Active Ageing

- 2013 IAGG 세계 노년학·노인의학대회(Seoul)의 주제
- 2015 WHO 세계노인건강보고서에서 제안



새로운 패러다임 · 새로운 시각

새로운 패러다임

■ WHO의 Healthy Ageing

: 세계노인건강 보고서 (World Report on Ageing and Health, 2015)

– Margaret CHAN, WHO General Director (2015)

“Healthy Ageing is more than just
the absence of dise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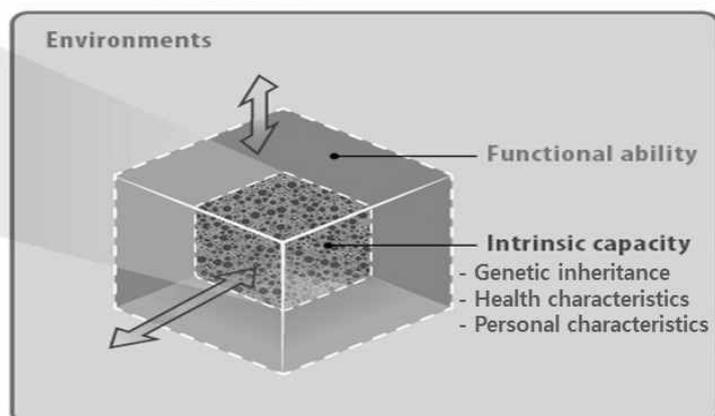
- 노년기의 well-being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적 활동능력 (FUNCTIONAL ABILITY)의 개발, 유지
- 기능적으로 독립생활 (FUNCTIONAL INDEPENDENCE)을
할 수 있는 내재적 능력 개발, 유지



« 새로운 패러다임 · 새로운 시각

새로운 패러다임

■ WHO의 Healthy Ageing



WHO World Report on Ageing(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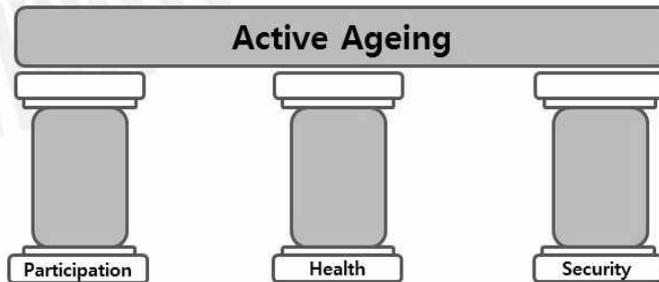


《《 새로운 패러다임 · 새로운 시각

새로운 패러다임

■ UN의 Active Ageing

- 건강, 사회참여, 안전 및 보장이 Active Ageing의 3대 축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ople

Source: WHO (2002), Active Ageing Policy Framework



《《 새로운 패러다임 · 새로운 시각

새로운 패러다임

■ 노년부양비(Age Dependency Ratio)의 새로운 공식

$$\frac{65\text{이상 노인}}{15\sim 64} \longrightarrow \frac{65\text{이상 노인(Non Healthy Ageing)}}{15\sim 64 + 65\text{이상 노인(Healthy Ageing)}}$$

■ 고령사회의 노인부양부담 감소로 노인문제를 보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정책 가능

- 2030년 한국 노인부양부담 예측 지 38.6을 20.0 이하로 줄일 수도 있음



《《 새로운 비전 · 새로운 과제

노인에 대한 긍정적 시각

- 노인을 병약하고 의존적 존재, 수동적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 보고 부양부담의 짐, 경제적 성장의 부담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의 변화 필요
- 노인에 대한 긍정적 시각 전환 필요
 - Disrupt Ageing : 2017 IAGG 세계대회(샌프란시스코) 개막 강연 주제
 - 연령을 버리자
 - 지금의 60, 70, 80대는 1세대전의 60, 70, 80대와 다르다
- 새로운 과제
 - 노인의 연령기준 변경 : 예) 65세 → 70세
 - '노인' 용어 변경 필요 : 신중년, 장년, 시니어 등
 - 연령차별주의(Ageism) 철폐



《《 새로운 비전 · 새로운 과제

노인을 자원으로 보는 시각

-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생활 즉 웰에이징은 노인개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적 자원
- 고령사회의 노인인구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무한한 자원
 - 많은 노인들은 6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
 - 일부 노인들 새로운 직업 시작
 - 각계 각층에 참여하고 리더십 역할
 - 젊은이들의 롤 모델이나 멘토, 교육자 역할
 - 가정에서 가족지지자, 돌봄이 역할
 - 자원봉사자로 지역사회를 위하여 유용하고 중요한 역할 수행



《《 새로운 비전 · 새로운 과제

일하는 노인 확대

-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상의 구현으로
일하며 사회참여 하고자 하는 노인인구 크게 증가
 - 베이비 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퇴직으로
대거 노인세대 편입
- 일하는 노인 확대 정책
 - 고용시장의 생년연령 조정
 - 노인일자리 확대
 - 노인 적성직종 개발 보급
 - 연금정책 연계 조정



《《 새로운 비전 · 새로운 과제

노인 교육 확대

- 긍정적, 적극적 노년상 구현으로
제3의 인생설계를 위한 교육 필요
- 노인교육 정책
 - 노인 의무교육제도 실시
: 60세 퇴직 후 일정시간 의무교육
 - 평생교육 확대
: 노우생활설계 교육, 새로운 창업교육 등



《《 새로운 비전 · 새로운 과제

노인 사회참여 확대

■ 웰 에이징과 사회참여

-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생활에서 사회참여 중요

■ 자원봉사 · 사회봉사

- 그간의 지식과 경험 활용 사회발전기여
- 후진교육, 독거노인 돌봄, 어려운 이웃 돕기 등 봉사영역 다양



《《 새로운 비전 · 새로운 과제

시니어 산업

■ 초 고령사회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시니어산업 개발, 촉진

- 용어 : 시니어 산업, 실버산업, 친 고령산업 등
- 의미 : 노인, 고령자를 주요 수요자로 하는 재와 및 서비스와 관련되는 산업
 - 건강, 주거 및 생활, 활동, 사회참여 관련 서비스
- 예: 강원도 노우은퇴자 주거산업

■ 배경과 과제

- 고령사회 노인건강 수요의 증가
- 노년의 Anti Aging, Well Being에 따라 노인층이 거대한 소비자로 등장
- 건강기반 경제(Health Based Economy)의 발전
 - 건강산업(Health Industry)의 발전
 - IT기술과 노인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의 융합발전
- 21세기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 촉진



« 새로운 비전 · 새로운 과제

고령사회의 도전을 기획로

한국의 인구고령화
도전 → 기획

새로운 비전
노인의 대한 긍정적인 시각

새로운 패러다임
Healthy and Active Ageing



THE 21st IAGG WORLD CONGRES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Global Aging and Health: Bridging Science, Policy, and Practice

SAN FRANCISCO
IAGG 2017

Late Breaker Abstract
Submission Opens
December 15, 2016

MOSCONE WEST
SAN FRANCISCO, CA
JULY 23-27, 2017
iagg2017.org

HOSTED BY



THE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

CO-HOST ORGANIZATIONS

afar
american federation
for aging research



AIGIHE | ASSOCIATION FOR GERONTOLOGY
IN HIGHER EDUCATION



ncoa
National Council on Aging

토 론

송 민 경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변 영 혜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장)

김 영 범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교수)

어 흥 선 (경동대학교 실버복지학과 교수)

최 형 자 (강원도 경로장애인과장)

강원도 노인인력의 적극적 활용 방안 모색 필요

송민경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문을 통해 초고령사회의 현상을 예측해보고,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상’, ‘사회 참여’, ‘젊은이들의 롤 모델이나 멘토, 교육자 역할’라는 말들을 통해 앞으로 모색되어야 할 새로운 비전과 과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해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강원도의 경우 고령화율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강원도 상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노인인력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2016년 기준 강원도 18개 시·군 중 고령화율이 20%가 넘는 지역은 8곳(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고성, 양양)이며, 태백과 철원이 거의 20%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임.

〈표 1〉 강원도 시·군별 고령인구 및 고령화율(2016)

구분	고령인구 (65세 이상:명)	고령화율(%)	구분	고령인구 (65세 이상:명)	고령화율(%)
합계	266,152	17.2			
춘천시	41,699	14.9	삼척시	14,610	21.0
원주시	42,246	12.5	홍천군	14,933	21.3
강릉시	37,679	17.6	횡성군	11,323	24.6
동해시	15,124	16.2	영월군	9,915	24.7
태백시	9,266	19.7	평창군	9,837	22.7
속초시	12,752	15.6	정선군	9,008	23.3
철원군	9,112	19.0	고성군	7,151	23.7
화천군	4,806	18.3	양양군	6,981	25.6
양구군	4,108	17.1			
인제군	5,602	17.1			

출처 : 강원통계정보(<http://stat.gwd.go.kr>)

- 강원도에서는 어르신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원도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등을 통해 강원도형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안정된 노후생활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2017년 기준 강원도의 65세 이상 인구는 27만 4천명(17.7%)이며, 2020년에는 20.1%로 초고령화사회 진입 예정임. 또한 현재 도 합계출산율은 1.24명이고, 노년부양비율이 25.0명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4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임. 더욱이 저소득 독거노인이 증가('15년) 38,135명 → ('17년) 43,615명(증 5,480명))한 만큼, 노년층의 일자리 및 소득보장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음. 앞으로 이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라 판단됨¹⁾.

이런 가운데 지난 4년간 강원도에서는 노인 소득보장 차원에서 어르신일자리(22천자리 → 41천자리)가 확대되었고, 앞으로 100세 시대 고령친화 사회로의 도약을 목표로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17년) 41,358명 → ('18년) 44,500명 → ('19년) 46,000명)하고, 강원도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를 통해 강원도형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안정된 노후생활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출처 : 2018년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시책,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 내부자료>

1. 도내 노인인력 활용을 위해, 이들이 가진 '인적자원'과 욕구 파악 선행 필요

- 강원도 노년층이 가진 인적자원과 일자리에 대한 욕구는 어떠한가?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입니다. 일자리 관련해서는 먼저 그들이 가진 인적자원과 욕구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나 자료가 존재하는지 점검하고, 지속사업인 경우 사업 운영 시 수집되는 만족도조사 결과와 담당 공무원 및 실무자 등의 평가 자료 등을 통해 관련 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강화해갈 계획이라면 이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일자리 사업 아이템이 선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강원도 차원의 자료가 구축되지 않았다면, 전국차원의 선행 자료들을 토대로 강원도의 상황을 예측해보고, 적용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노인들은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 '일하는 즐거움, 사회가 필요해서' 등의 이유로 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근로형태는 대부분 취업(71.5%)이며, 희망소득은 20~60만원(37.7%), 60~100만원(30.8%) 순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73%)하는 경향이

1) 전국적으로는 2017년 노인인구(65+)(13.8%)가 유소년인구(0-14세)(13.1%)를 능가하기 시작함(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 또한 2015년 기준으로 60~64세는 59.1%, 65~69세는 44.1%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통계청(2015), 경제활동 통계연보 자료)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인일자리아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참여노인의 희망소득과 실제 소득 사이에 괴리가 있는 만큼, 향후 시장형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지은정·최지현·이숙현, 2015²⁾)³⁾.

여기에 관련 교육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임으로써, 취업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이러한 측면이 취약하다고 판단됩니다. 60세 이후에 근로를 할 때에도 자신들이 가진 인적자원과 인적자원개발을 통해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60세 이상의 직종은 단순노무직과 농림어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노년층이 원하는 적합 직종·직무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도내 젊은 층의 유입/유출, 정주의사 예측 필요

- 강원도에 누가 들어오려고 하고, 누가 떠나려고 하는가?

강원도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내 젊은 층의 인구 유입/유출, 정주의사 등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강원도를 떠나고, 들어오는 젊은 층은 누구인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강원도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20대(26%)와 30대(13.2%)의 비율이 높았음. 이는 교육이나 직장 등의 사유로 이주한 경우라도 판단됨.

〈표 2〉 강원도 거주기간

(단위 : %)

연령	계	5년 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년 이상
13~19세	100.0	4.7	6.9	33.3	55.1	-
20~29세	100.0	26.0	7.3	5.2	5.5	56.0
30~39세	100.0	13.2	8.8	10.8	4.2	63.0
40~49세	100.0	6.4	6.3	7.6	7.9	71.7
50~59세	100.0	4.3	3.3	5.1	3.3	83.9
60세 이상	100.0	2.9	2.6	2.5	1.9	90.1
65세 이상	100.0	2.5	2.1	2.7	2.1	90.6

출처: 강원도(2016), 『2015년 강원도의 사회지표』

- 2) 지은정·최지현·이숙현, 2015, 『우리나라 노인의 취업실태 및 기업의 노인인력 수요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3) 또한 65세 이상의 희망 일자리는 취업 65.5%, 사회공헌형 일자리 14.3%, 여가형 일자리 15.2% 순임(보건복지부(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강원도 정주의사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음. 이런 맥락에서 10대(13세~19세)와 20대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강원도 정주의사가 미약한 편이었음.

〈표 3〉 강원도 정주의사

(단위 : %)

연령	계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3~19세	100.0	10.3	26.1	32.6	25.2	5.8
20~29세	100.0	14.0	32.4	30.3	19.0	4.4
30~39세	100.0	28.8	39.6	18.8	9.7	3.1
40~49세	100.0	38.4	38.3	16.5	5.2	1.7
50~59세	100.0	50.6	34.3	10.7	3.6	0.8
60세 이상	100.0	71.2	22.0	5.7	1.0	0.2
65세 이상	100.0	73.3	20.5	5.3	0.6	0.2

출처 : 강원도(2016), 『2015년 강원도의 사회지표』

-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이유에 대해, 10대의 경우 타 시도에 거주하고 싶어서(45.9%), 본인 및 자녀의 교육 때문(27.2%)이라는 비율이 높았음.

〈표 4〉 다른 지역으로 이사 이유

(단위 : %)

연령	계	타시도에 거주하고 싶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사업 하기가 힘들어서	본인 및 자녀의 교육 때문에	연고지가 아니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 좋지 않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기타
13~19세	100.0	45.9	11.1	0.4	27.2	0.9	9.6	1.2	3.7
20~29세	100.0	16.4	25.0	0.7	6.4	21.2	21.6	6.9	1.8
30~39세	100.0	10.7	20.5	2.9	20.9	21.8	15.5	5.7	2.0
40~49세	100.0	13.8	20.9	6.0	13.5	19.2	15.3	8.2	3.1
50~59세	100.0	19.0	18.2	10.7	2.1	13.5	19.0	14.2	3.3
60세 이상	100.0	21.4	20.6	4.5	-	23.2	8.0	16.1	6.2
65세 이상	100.0	17.7	18.6	-	-	33.0	3.6	23.6	3.6

출처: 강원도(2016), 『2015년 강원도의 사회지표』

- 현재 도내 귀농귀촌인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때 청장년 귀농귀촌인이 증가 추세임. 강원도의 경우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가 없는 곳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이 가장 많은 상황

임. 이들은 도시 삶의 어려움 등을 토대로 자연환경이 좋고, 본거지였던 수도권과 근접성이 좋은 강원도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음.

- ※ 도내 귀농가구 : 2014년(792가구)→2015년(986가구)→2016년(1,058가구)
도내 귀농가구원 중 30대 이하(20%), 40대(16%)가 총36%차지(2016년)
- ※ 도내 귀촌가구 : 2014년(2,960가구)→2015년(4,953가구)
도내 귀촌인 중 30대 이하(48%), 40대(16%)가 총64%차지(2016년)

<출처: 통계청 및 강원도청 내부자료>

- 현재 도내 출신 젊은 층은 떠나려하고, 타시도의 젊은 층은 강원도로 들어오려는 경향이 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도내에 정착하려고 하는 젊은 층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사업에 대한 예시(노인일자리와 젊은 층의 정착을 위한 사업)

사업 예시>>

강원도 농촌지역 노인의 맞춤형 인적자원 활용

: 강원도 농업인과 청장년 귀농인 멘토-멘티 사업

- 농촌지역 노인의 농업 관련 지식 등을 청장년 귀농인에게 전수
- 농업인의 맞춤형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추가 소득 확보에 기여
- 청장년 귀농인의 안정적인 귀농생활 지원

I. 추진배경

- 현재 농촌지역은 인구 고령화와 지역 과소화 현상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 유지·보전에 어려움이 예측됨. 도내 농가의 절반정도가 겸업농인 것을 감안하면, 농업소득 외의 추가소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이런 가운데 최근 도내에 청장년(20~40대) 귀농귀촌인이 증가하고 있음. 이때 젊은 귀농인의 경우 지식은 미약하지만, 농업에 대한 의지와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이들은 농업 지식 등을 지도해줄 멘토에 대한 욕구를 가짐.

II. 현황

- 강원도의 농가 수는 73천 가구, 농가인구는 176천명임.
- 강원도 농가인구 중, 60세 이상이 48.1%임.
(50대 23%, 60대 22.2%, 70대 19.3%)
- 현재 도내 귀농귀촌인 증가, 청장년 귀농귀촌인도 증가 추세임.

III. 문제점

- 농촌지역의 일자리 부족과 고령으로 인한 구직 제약
-고령 농업인의 경우 농업 지식과 농촌생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농촌지역에 농업 외의 일자리가 많지 않으며, 나이로 인해 구직이 쉽지 않음.
- 청장년 귀농인의 미약한 농업 지식
- 관련 센터 등의 지속적인 1:1 서비스 제공 시스템 미비
-현재 도내 귀농귀촌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귀농인들에게 농업교육과 관련 서비스(선배귀농인 멘토링 등)를 매칭해주고 있지만, 이를 장기간 지속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가 없는 곳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이 가장 많은 만큼, 지속적인 농업 관련 지도에 대한 욕구가 존재함.

IV. 추진사업 계획

- 도내 농촌지역의 고령 노인 중, 60대 노인의 경우 적극적인 추가근로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이에 60대 농업인과 청장년(20~40대) 귀농인을 1:1로 매칭하도록 함.
- 실질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농업인의 인적자원을 청장년 귀농인들에게 전수함. 그 과정 속에서 농촌생활에 대한 삶의 지혜 등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음. 농업인과 귀농인이 win-win 긍정적 효과 제고 가능함.
- 관련 부서 : 경로장애인과 및 농정과, 해당 귀농귀촌지원센터(사업 진행)
- 1단계 : 사업 대상자 선정
-사업계획에 따른 대상자 기준 마련 및 공고/접수
-지자체 할당 인원수를 토대로 한 대상자 선정
- 2단계 : 멘토-멘티 간 욕구와 가능 서비스 파악
-지역사회 근거리 대상으로 배정(맞은 접촉 가능성 제고 필요)
-청장년 귀농인이 선호하는 작목과 멘토가 추천하는 작목 조율
-관련 교육/서비스 수혜 경험을 토대로, 가능 서비스에 대한 조율 및 계약
- 3단계 : 서비스 시행 및 평가
-정해진 기간(예:10달) 동안 서비스 수행
: 농업 기술, 농지 구입 및 지역사회 관련 정보 등
-서비스 진행과정에서 내용 변경 가능
-서비스 종료 후 평가(멘토-멘티 양자 평가)를 통해 지속여부 결정

4. 기존 사업에 대한 진입 및 관련 부서(기관) 간의 협업 체계 구축 필요

-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이때 자체사업으로 구성해서 예산을 책정 받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고, 기존 사업 중 포함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이것의 진입을 고려해보는 것도 용이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장·노년층 일자리 사업을 현재 여러 정부부처(노동부, 문체부, 복지부, 산림청, 행자부, 환경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협업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강원도 차원에서도 관련 부서 간 협업과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동안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이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그 노력들이 모여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판단됩니다.

초고령 사회를 향한 새로운 시각과 과제

(노인의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변 영 혜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장

강원도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초고령 사회 새로운 패러다임과 강원도 대응전략 모색’이라는 주제로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동안 복지현장에서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고 지역공동체가 노인들을 위해 어떤 접근들을 확대 시켜나가야 할지 나누고자 한다.

2000년부터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하는 막연한 부담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평균수명의 지속적인 증대는 개인의 삶과 노인복지정책 수립과 수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길어진 노년기로 인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고령 사회의 도래는 단순히 노인인구의 증대라는 인구학적인 특성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의 복잡성이 있다. 즉 노인 인구의 증대는 사회적 부양대상자인 노인의 건강 및 의료에 대한 욕구의 증대, 노인의 경제적 생활안정 문제, 노인의 주거생활 문제, 여가활동 문제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폭발적 증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노인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족부양기능에 의존하였지만 가족구조와 기능이 변화하면서 이 문제를 사회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에서는 각종 노인복지정책으로 노인들의 경제적인 생활을 보장을 위해 각종 노인일자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노인들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호, 각종 수당지급 등을 통해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한 현재 가장 큰 이슈인 건강하지 못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노인뿐 아니라 65세 이상의 장기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위해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긴 노후를 보내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노후의 삶

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자신이 속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으며 '생애의 긍정적 경험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발제자도 논고에서 다루었던 이 건강한 노화는 단순한 것 이상 즉 질병의 부재, 그리고 기능적 활동능력의 개발·유지와 높아진 교육수준과 안정적인 경제력을 갖춘 노인인구의 증가는 과거와는 달리 의존적인 노후를 보낸다는 고정관념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노년기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개인, 사회, 국가적 전략이 요구되는 시기가 왔다고 볼 수 있다.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구고령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어진다. 이에 따라 저의 토론문에서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의 사회참여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고 참여자들의 변화와 앞으로의 지원방안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016년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노인사회활동참여자 119명의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현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19명의 참여자는 노노케어형 사회활동인 썩뜸사업단, 마음보듬이 사업단과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단 등 세 개의 사업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참여자의 82%는 70세 이상의 노인이며 활동의 가장 큰 이유는 50%가 '경제적 이유'라고 답했지만 그 중 25%는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서' 라고 답하였다. 활동내용, 활동강도, 제공받는 교육 및 강의 만족도등에 90%이상의 어르신들이 만족한다고 답하였으며 본인들 활동의 사회적기여도를 묻는 질문에 95% 기여하고 있으며 매우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참여 후 가장 큰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건강개선이 경제적 도움 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발전, 대인관계개선 긍정적인 성격으로의 변화등도 높게 나타났다. 계속참여 여부는 90% 이상의 참여자들이 계속 참여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할 사업으로 우리복지관이 2017년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미중물'사업이다. 이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스스로 지역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돕고,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로 변화시키는 사업이다. 그러나 우리복지관은 춘천지역에서도 가장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젊은 사람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이러한 활동들에 동참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그런 이유로 활동가들의 구성은 통·반장님들과 노령과 장애, 만성질환 등을 갖고 있지만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동참하겠다는 '의지' 하나로 모인 지역주민들인 것이다. 그리고 현재 마을활동가들의 평균연령은 70세 이다. 처음엔 과연 이분들과 함께 이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지만 함께 교육을 받고 워크숍, 팀별모임, 월별정례회의 등을 통

해 그냥 이름만 있는 활동가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등불과 같은 역할들을 잘 수행하고 계신다.

이웃 주민들에게는 아직까지 마을활동가, 지역의 리더이기보다 그냥 옆집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인식이 있지만 그동안의 살아오신 지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확인하며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감당하고 있다. 이웃과 만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웃과 대화를 통하여 개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모습과 지역의 문제 등을 접하게 되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를 차츰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역주민과의 연대형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각종 문제에 직접 참여,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도 한다. 힘들지만 삶의 활력과 행복함을 우리에게 나누고 있으며 끊임없는 의견제기와 소통으로 지금까지의 변화들을 얻어냈다고 마을활동가들은 생각하고 있다.

성공적인 노후와 사회참여란 바로 이런 것이다.

일상 활동을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신체적 기능의 수준을 유지하고, 더불어 가족, 친구, 이웃과 사회관계망을 지속적으로 유지 해 나가면서 은퇴이후에도 경제활동 또는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라고 본다. 사회참여는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후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자아존중감이나 자아통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사회참여는 단순히 어르신들의 무급봉사차원의 활동들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적절한 지원을 통한 여러 형태의 사회참여활동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무급·유급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활동들의 조화이다.

전통적인 사회참여인 종교활동, 취미활동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인 가족이외의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통합, 사회적기여, 사회적 연관성, 사회적 실현, 사회적 수용을 통한 성공적인노화 행복한 노년의 삶이되도록 지역사회와 지방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민간기관을 지원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인들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첫째, 노인들의 여가활동장소가 충분히 확보 될 수 있어야 한다.

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이 노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실버공학적인 요소를 적용하여 다가올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고, 보다 적극적인 노인들의 이용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정년까지 했던 직업을 살린 일들을 봉사활동이나 사회참여활동에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공공영역 및 유급자원봉사의 확대가 필요하다.

노인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참여활동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자신이 사회에서 유용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가치를 유지하고 일에 대한 성취감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또는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사회참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참여활동에 관하여 가족·지역공동체의 지지와 관심 그리고 보상이 필요하다.

지속적이며 성공적인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역할로 공공영역으로의 사회참여활동 기회를 증대 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지역공동체 활동에 노인인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현재 읍면동 보장협의체 사회복지봉사단 위원을 60세 이상 건강한 노인인구로 많이 유입하고 유급화 하여(이하 타임뱅크 제도)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타임뱅크 제도의 운영이다.

우리나라는 구미지역과 경상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지속적인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지역상황에 맞는 운영모델을 개발하여 사회활동참여와 소득을 연계하여 지역공동체회복과 개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지자체마다 경쟁하고 있는 축제 일변도에서 이제 타임뱅크를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제안해 본다.

노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큰 슬픔에 빠져 지낼 때가 많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 그러나 누구도 자신이 늙음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초고령 사회로 급속히 달려가는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들을 경제의 짐처럼 생각할 뿐 아무도 행복한 황혼의 권리를 말해주지 않는다. 아름다운 실버로 살아갈 수 있게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금의 경제가 있게 해준 오늘의 실버세대를 제대로 인정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실버”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치매친화공동체(dementia friendly community)의 필요성

김 영 범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교수

발제문에서 언급된 바처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치매환자 역시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다. 치매는 다른 질병에 비해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치매는 발병하면 치료가 어렵다는 점에서 조기에 발견하여 그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치매는 다른 질병에 비해 부정적 인식 즉 스티그마(stigma)가 가장 심한 질병이다. 치매는 걸리면 치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존엄을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한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치매환자를 대중매체에서 보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나 태도를 살펴본 조사에 의하면 주로 불쌍함, 대소변, 두려움 등이 다른 감정에 더 많이 언급되고 있다.

셋째, 치매는 인지기능이 약화되는 질병이라는 점에서 가족에게 커다란 짐을 지우는 질병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현실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일은 전적으로 가족의 부담으로 전가되는데, 치매환자의 돌봄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가족이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치매환자는 치매로 인해 다양한 사건과 사고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치매환자의 실종, 교통사고 등은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약화로 인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고 들이다.

늘어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것과 관련해 조기 검사 및 치료, 요양시설의 확대 등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다. 최근 서구의 경우 치매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른 바 치매친화공동체가 그것이다. 치매친화공동체는 치매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인간적인 존엄을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치매친화공동체는 치매환자를 위한 도시공간 구성, 환자 및 가족 지원프로그램 구축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지만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것이 일반대중의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는 것이다.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치매에 대한 조기검진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치매환자와 일반대중의 접촉이나 교류를 방해하여 치매환자를 지역사회에서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치매를 질병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특징과 대응방법을 습득함

으로써 일반대중이 치매환자와 두려움 없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홍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반대중에게 이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은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나 대규모 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지역사회 주민들에게까지 교육이나 홍보가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치매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전달하는 것은 두 가지 과제를 제기한다.

첫째, 지역사회 구성원은 동질적인 존재가 아니다, 사회학 용어로 표현하지만 지위와 역할에 따라 다양한 집단과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치매환자 혹은 그 가족과 지역사회 구성원이 대면하는 상황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교육 역시 치매환자와 지역사회 구성원이 대면하는 구체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약사가 만나는 치매환자와 택시기사가 만나는 치매환자는 상이한 맥락을 갖는다. 이를 반영한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구성원 개개인에게까지 교육을 어떻게 전파시킬 수 있는가 역시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현재까지 교육은 사람들을 쉽게 모을 수 있는 대규모 조직이나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상가, 교통시설 종사자, 자영업자 등 치매환자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대상들까지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치매환자를 접하는 이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인가 역시 고민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서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치매친화공동체와 관련해 영국의 경우 치매행동동맹(dementia action alliance)을 지역사회에 구축하고 있다. 이 조직은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가입되어 있는 지역 사회 조직이나 단체는 자신이 치매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지역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하여 이를 실천한다. 이와 함께 조직이나 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자발적 활동을 통해 앞서 살펴본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강원도도 인구 고령화 수준이나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치매친화적 지역공동체 구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공적 시설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역공동체의 자원을 치매환자의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자원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 복지수요증가에 따른 발전요인 :

국내·외 실버산업을 중심으로 한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

어 홍 선 경동대 실버복지학과 교수

1. 고령화에 따른 노인을 둘러싼 문제점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나라로 노동 공급과 수요 부족에 따르는 잠재성장률 하락, 의료 복지 등 사회적 부담 증가, 산업 경쟁력 약화 등과 같은 문제 대응을 위한 정부 및 민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오늘날 우리사회의 노인들이 겪고 있는 노인문제는, (1) 경제적 어려움 (2) 건강보호 문제 (3) 사회 심리적 문제(역할 상실과 소외 및 고독, 직업 없음, 소일거리 없음, 외로움과 소외)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2. 고령자 복지수요의 구체적 내용

2.1 노인의 건강과 기능상태의 변화에 따른 보건, 의료 수요

- 노후의 건강은 노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지만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에 대한 염려와 위험요인 증가.
- 이에 따른 신체보조 용구 등의 이용비율 증가 및 치매노인의 증가로 인한 보건, 의료 수요 증가가 예상됨.

2.2 경제상태 및 사회활동의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 지난해 우리나라의 평균퇴직연령은 53세로 나타났으며, 직장상실로 인한 사회적 활동 및 역할상실로 사회심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700만명 가운데 국민연금을 받는 이들은 266만명(38%)이며, 또 노인들이 받는 월평균 연금액은 36만 8천원으로 집계됨.
- 여전히 노인절반 이상이 국민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수령액도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매우 부족.
- 따라서 연금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의 경우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이들에 대한 경제적 소득보장이 요구됨.

2.3 기타

- 정서적 지원 복지수요 : 은퇴, 배우자나 친구의 죽음, 내향성 증가 등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게 되면서 발생
- 여가활동 및 정보적 지원 복지수요 :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향상된 삶의 질을 원하면서 발생, 활동 변경의 축소 등으로 사회적 접촉과 정보 소스가 줄어들면서 발생
- 사회활동지원 복지수요 : 쇼핑, बैं킹 등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활동의 보조가 필요하면서 발생
- 보안지원 복지수요 : 불안감 상승과 독거노인 숫자의 상승으로 인해 발생

3. 고령자 복지수요증가에 따른 국내·외 노인 일자리정책

- 이러한 노인 문제의 해결 방안중 하나인,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는 소득원이 없는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사회참여, 소속감, 자긍심, 보람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와, 비생산적인 시간을 줄이고, 적극적인 노년기를 보내게 된다. 노인에게 일은 경제적 효과와 아울러 사회적 참여와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3.1. 우리나라의 경우

- 평균 53세면 정년퇴직하게 되어 재취업을 희망하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의 대부분은 적성이나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노무직이고, 저임금이어서 생계에 별로 도움이 안됨.
-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경우, 연령차별금지법이나 정년불허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정년제가 있어도 65세 이상부터 정년을 허용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라 우리나라보다 평균 12년후에 정년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적 소득이 보장되고 있음.

3.2 일본의 경우도

- 2010년부터 65세 미만 정년 불허제를 도입하여 본인만 원한다면 누구든 65세까지 일할 수 있고, 최근에는 70세 정년기업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 연금수급률과 연금액도 우리나라 보다 높아서 생계형취업보다는 알바나 후리타 등의 형태로 유연근무체제 운영.
- 예를 들면, 햄버거업체인 모스버거의 경우, 노인을 고용하여 학생들이 일하기 힘든 밤 9시이후나 새벽시간에 하고, 인력파견업체의 경우, 가스점검이나 수리를 할 때 젊은이들이 일하기 꺼리는 주말에 주로 노인을 파견하여 젊은이들과 경쟁하지 않고 그들이

못하는 틈새시장을 공격하고 있음.

3.3 프랑스나 독일 등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와 미국의 경우

- 연령차별금지법과 정년 불허법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된 노후를 있다고 보여짐.

4. 고령자 복지수요증가에 따른 노인 일자리 창출 대응방안

4.1 국가적 차원

- 우리나라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이 존재하는 한 기본적으로 정년 제도를 폐지하거나 늘리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연령차별제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 또한 고령근로자에 대해 현장업무능력향상과 교육훈련 등 경력개발교육을 통해 정년 후 이직이나 전직 등 재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가는 것이 중요
- 고령근로자가 퇴직 후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제2, 제3의 직업을 갖기 위해 평생교육학습을 통해 꾸준히 준비하는 자세가 요구됨.

4.2 지역차원

- 강원지역의 경우, 우리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과 지역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여성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서비스 인력 창출 중요성 인식

4.2.1 미국의 엘더호스텔(Elderhostel) 프로그램

- 미국의 경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체험여행인 엘더호스텔(Elderhostel)이란 프로그램이 대중화돼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에게는 유스호스텔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령자들이 지역내 호스텔이나, 지역 대학내 시설을 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평생교육과 관광을 합한 주제별 학습 프로그램으로 전세계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 프로그램은 간단한 체험에서부터 크루즈까지 다양하며, 바다와 강을 탐험하는 '선상모험', 손자와 함께 여행하는 '세대간 여행',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 학습' 등으로 나뉨. 대학과 정부가 재정 보조를 하고 참가자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일정 기간 동안 대학 캠퍼스에 머물면서 고등교육 과정을 접하는 기회를 갖기도 함.

4.2.2 일본노인관광 전문 여행사 클럽 투어리즘 프로그램

- 일본에는 노인관광 전문 여행사 클럽 투어리즘은 ‘베리어 프리(Barrier Free)’라는 여행 상품도 운영하고 있으며, 휠체어 여행자를 위해 리프트 장착 버스를 제공하고 스태프들이 동행, 여행물품을 운반하고 식사와 목욕을 돕는 등 편의를 제공함. 이 상품의 연간 이용자는 1만명이 넘는다고 전해짐.

4.2.3 일본 실버산업에서 성공 예감이 확인된 실버테마 사례

가) 6차 산업을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 테마

- 6차 산업이란 1차(단순 생산)인 농업을 2차(가공, 제조), 3차(판매, 관광)로까지 확대한 개념으로 농산물 생산만 하던 농가가 고부가가치 상품을 가공하고 향토 자원을 이용해 체험프로그램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시켜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산업으로 농촌 부활과 노인 활력, 재정 확보, 생산 기여 등 다수의 목적이 해소가능. 따라서 지방 농촌에서는 전담지원팀을 꾸려 귀농 고령자를 모시고 있는 상황. 강원 지역에 적합한 테마.

나) 은퇴 여성 전용 피트니스클럽 ‘커브스’

- 중년 이상의 은퇴 여성을 대상으로 주택가에 설치한 여성 전용 피트니스클럽 ‘커브스 (Curves)’라는 것이 있는데, 무병 지향의 질병 예방 차원에서 ‘3 No M’(남자Man가 없고 화장Make-up이 필요 없으며 거울Mirror가 없다)을 포인트로 여성 특유의 불만거리 제거 효과

MEMO

MEMO

MEMO